

## 지역노동시장의 현황과 논의



| 정인수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nsoojeong@kli.re.kr)

### 지역노동시장의 중요성

노동시장의 상황은 지역별로 다르다. 지역별로 주요 업종이 다르고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직종과 인력수급이 다르다.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의 노동시장 상황이 다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이 다르다. 또한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수원, 부천, 안양, 의정부 간의 중요업종과 인력수급 상황 역시 아주 다르다. 우리나라의 영토가 그리 넓은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앙에서의 기획과 획일적인 업무수행 방식만으로는 지역개발이나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 지역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려는 참여적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지역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려는 참여적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참여주체들이 지역협의체를 통해 스스로의 문제를 자발적 참여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

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20여년 전부터이다. OECD 국가들은 20여년 전부터 OECD 내에 LEED(Local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라는 지역 고용과 경제개발이라는 독립된 기구에서 지역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세계화, IT화의 진전으로 인한 세계 무역 경쟁의 심화와 관련이 있다. 경쟁력 있는 생산요소의 지역 간 결합이 세계화와 IT화로 인한 교통 통신의 발달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역 개발과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은 지역에서 지역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업종별 인력수급과 직업훈련 정책이슈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참여주체들이 지역협의체를 통해 스스로의 문제를 자발적 참여에 의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

본 고에서는 지역노동시장의 현황과 논의를 위해 부천 제조업 노동시장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발견과 정책과제를 논하고, 선진국의 지역협의체 모범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부천 제조업 노동시장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역노동시장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실정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노동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견본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선진국의 지역협의체 모범 사례는 이렇게 지역이슈를 개발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

주체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방식을 소개한 것이다. 특히 아일랜드의 지역협의체(City Development Board: CDB)는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개발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우리나라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할 것이다.

## 부천 제조업 노동시장 분석<sup>1)</sup>

### | 부천 제조업 개관 |

부천 지역은 제조업 중심 지역이다. 부천은 지역 내 총생산액으로 볼 때 제조업 비중이 2002년 31%로 전국 평균에 비하여 8%포인트 높으며, 근로자 수도 제조업 비중은 33%로 높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및 근로자 수도 금융위기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으로 업체가 이전할 계획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지역의 주요 5대 업종은 기계 및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조립금속제품,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전환장치로 나타나며, 이들 5개 업종이 부천 전체 제조업의 72%를 차지한다. 금형 및 주형이 부천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 수 면에서는 14%, 근로자 수에서는 12%를 차지하여 단일 업종으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부천 제조업 사업체 규모를 보면, 1~4인 규모가 57%, 5~9인 23%, 10~29인 15%로 29인 이하 규모가 전체의 95%를 차지하는데, 기타 특수기계(금형, 주형), 인쇄/출판업, 섬유/의복 제조업에서 특별히 1~4인 규모 비중이 높다.

### | 일자리 창출과 소멸 분석 결과 |

부천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 소멸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부천 지역 제조업은 국내 타지역이나 선진국보다 일자리 변동 자체가 극심하다. 경기불황 시 일자리 감소와 이에 따른 노동이동도 극심하여 선진국의 경기순행적(procyclical) 현상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준다. 선진국 노동이동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잠복해 있고 경기가 좋아지면 더 나은 일자리를 향해 노동이동이 증가하는 경기순행적 현상을 보인다. 특히 중요 5대 업종 퇴직자일수록 새로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사실, 일반기계와 섬유업종에서 순일자리 감소를 보이는 것은 비록 부천 제조업이 순일자리 창출에서 성장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는 사양·성장산업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책적으로는 부천지역에서의 고용지원서비스는 업종별 직업훈련과 연계된 보

부천 지역은 제조업 중심 지역이며, 주요 5대 업종(기계 및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조립금속제품,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전환장치)의 비중이 제조업의 72%를 차지

부천 지역 제조업은 국내 타 지역이나 선진국보다 일자리 변동이 극심함

1) 정인수(2006). 『지역노동시장연구II』, 요약발췌.

다 정밀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라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조합 주도의 업종별 훈련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대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인력부족 등 설문조사 분석결과 |**

**부천 제조업의 주요 애로사항**

- ① 생산기능직 및 연구개발/기술직 인력부족
- ② 직종별 높은 이직률과 높은 구직 기간
- ③ 직업훈련의 기회, 복지수준의 제고, 자기개발 기회의 부족
- ④ 취약한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생산기능직 및 연구개발/기술직 인력부족이 부천 제조업이 당면한 중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부천 제조업의 인력부족 직종은 금속기계 및 관련 기능, 조립, 기계조작원 및 관련 기능,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조작 기능이며, 이 4개 직종이 채용희망 인원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필요 훈련직종은 기계가공/조립, 설계/제도, 조립/제조, 가공/조립/수리, 금속가공, 기타 금속, 화학제품 제조로 나타났다.

사업체 설문조사에서 직종별 이직률을 보면, 생산기능직에 업체의 71.6%가 응답하여 생산기능직 이직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단순노무직도 16.4%로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재직자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나는 열악한 근로조건, 일자리 창출 소멸 분석에서 나타난 영세업체의 일자리 변동이 극심한 것, 그리고 구직자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구조조정 및 해고에 의한 실업 비율이 높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구직자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구직자의 실업기간 3개월 이하 및 2년 이상으로 양분되는 실업기간별 양극화 현상, 구직자 직업훈련 경험이 5%에 불과한 사실은 실업자에 대한 정밀한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재직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부천지역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이 인력부족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임금수준에 대한 불만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지만, 직업훈련의 기회, 종업원 복지수준 제고, 자기개발이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은 업종별 훈련센터의 설립이나 직업전문학교 훈련원의 분소 설치 등의 훈련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투자, 부천 산업단지 집중지역에 소규모 공원 건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근무환경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체의 주요 구인경로를 보면, 주위의 아는 사람을 통해 33.6%, 생활정보지(벼룩시장, 가로수 등) 27.8%로 나타나 부천 제조업 업체의 60% 이상이 연고나 간단한 정보 수집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지원센터의 WORKNET(15%)이나 지자체 취업정보센터(12.5%) 등 공공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한 구인 노력이 아직도 30%를 밑돌고 있는 현실은 선진국에 비해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함을 보여준다.

**| 지역협의체 활동 |**

부천지역 노사정협의회와 부천 금형사업조합의 역할이 부천지역의 문제를 스스

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금형사업조합의 역할은 정책과제 수행방안의 하나로서 중요한 해결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부천지역 금형 사업체 수는 전국의 20% 정도로 집중되어 있는데, 부천시의 금형 관련 기업은 총 1,280개로 부천 제조업 전체 업체수의 14%를 차지하며, 근로자 수에서는 9,234명으로 전체의 11.9%를 차지한다. 부천 금형산업 협동조합은 2001년에 설립되어 현재 회원사 238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 후 그동안 월 1회의 협의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활동 주요업무는 업계의 가장 애로사항인 기능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기술정보 및 세계동향 공유, 업계의 공동 수주 및 마케팅, 해외 시장 개척, 사업 자금 지원 및 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다. 부천 금형사업 협동조합의 활동성과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부천금형집적화단지(몰드밸리: Mold Valley) 조성에 중요 역할을 하였으며, 둘째, 인천 인력개발원 부천센터의 설립으로 금형업종 기술교육 훈련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셋째, 지역 내 전문대학과 산학협력에 의한 맞춤형훈련에 의해 기능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고, 부천 금형사업 협동조합의 자체 교육훈련으로 부천 산업2단지 내 지하에 150평 정도의 시설을 마련하여 2개월 교육 후 실업자를 업종내 취업으로 유도하고 있다. 넷째, 부천금형사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조합원 대상 선진국 금형 기술자 강의와 훈련을 하고 있으며, 다섯째, 부천공고 금형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있다. 금형과 학부형과 선생님들의 업체 및 연구소 방문을 주선하여 금형산업의 가능성을 확인시키는 등의 결과로 부천공고 금형과의 경쟁률을 3:1로 높였다.

| 정책과제 |

부천 제조업에 대한 정책과제는 생산기능인력 부족, 직업훈련 확대, 근로조건 개선으로 요약된다. 지역중심의 구체적 정책과제를 논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노동시장 이슈파악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부천지역 노사정협의회는 아직 구체적 이슈를 개발하고 이 이슈에 대한 현실적 대안 제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가공/조립, 설계/제도, 조립/제조, 가공·조립수리, 금속가공 등 부천 제조업 인력부족 핵심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과 인력수급 원활화를 핵심 주제로 설정하여 지역 내 관련 사업조합, 훈련기관, 노동조합, NGO들과 토의를 한다면 지역 협의체가 지역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업종별 훈련센터의 설립이나 직업훈련원의 분소 설치 등 훈련시설과 프로그램 개발투자가 필요하다. 부천지역 내에는 공고와 전문대학이 두 개 있을 뿐 직업훈련이 가능한 훈련센터는 부재하다. 현장밀착형 맞춤형 기능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의 기회비용이 되도록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업종별 훈련센터의 설립이나 직업훈련 분소 설치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업종별 훈련센

부천 지역협의체 활동은 정책과제 수행방안의 하나로 중요한 해결점을 제시. 대표적으로 부천 금형사업조합이 가시적인 활동 성과를 보임

정책과제

- ①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이슈파악과 정책개발
- ② 업종별 훈련시설/프로그램 개발투자
- ③ 정책과제사업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시급
- ④ 부천시 기관과 대학들 간의 제도적 연계
- ⑤ 산업단지 집중지역 근무환경 수준 개선

터의 설립은 공적자금 투자에 의한 방안과 중소기업-대기업 연계에 의한 훈련 컨소시엄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셋째, 업종별 사업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이 시급하다. 현장밀착형 훈련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의 하나로서 부천 금형사업조합의 사례는 중요한 모델이 된다. 부천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부천 제조업 5대 업종에 속하는 고무 및 플라스틱, 일반기계, 전기/전자, 영상/음향 업종에도 사업조합 형성을 유도하고, 이들 사업조합에 대한 산업자원부로부터의 행·재정 지원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부천시, 부천 노동사무소, 부천지역 사업조합, 생산기술 연구원, 부천 산업진흥재단 및 지역 내 대학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에 동참하는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 부천 노동사무소나 부천시 차원의 부천지역 사업협동조합, 생산기술 연구원, 부천 산업진흥재단, 지역내 대학 등과의 제도적 연계나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섯째, 부천 산업단지 집중지역에 소규모 공원 건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근무환경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내에 식당, 오락시설, 여가시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이 해결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곳 근로자들의 근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부천시 몰드밸리·테크노벨트 내 복합 문화시설과 의료시설 유치와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복지회관 등의 단지 내 유치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천지역 근로자는 임금수준보다는 교육훈련의 기회나 종업원 복지수준 제고, 자기계발 가능성을 올려 줄 수 있는 방안이 중요 요구 사항으로 나타났다.

### ❖ 아일랜드 코크(Cork)시 지역협의체(City Development Board: CDB)

아일랜드의 지역 파트너십 사례는 OECD LEED에서 모범사례로 발표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지역 파트너십은 기존의 지역 고용지원센터 및 “지역개발경영(Area Development Management: ADM<sup>2)</sup>”을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으로부터 2003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sup>3)</sup>. 이제 아일랜드의 제 2의 도시인 코크시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협의체 사례를 우리나라 지역협의체 도입을 위한 모범사례로서 소개하고자 한다.

2) 아일랜드에서는 유럽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역 파트너십 수행은 아일랜드의 비영리민간단체인 ADM(Area Development Management)을 중심으로 자금이 지원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협의체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서 CDB(City Development Board)가 그 지역의 문제점 해결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물론 ADM이 있을 때도 CDB의 역할이 지역에서 중요하였으나, ADM과 CDB의 역할이 중복되면서 AMD보다는 지역에서는 CDB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3) OECD(2001) Chapter 6에서는 지역고용지원센터 중심이었으나 OECD(2003) Chapter 20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협의체로 중심축이 이동되고 있다.

| 코크시 개관 |

Cork City는 아일랜드 제 2의 도시로 아일랜드 서남부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다. 아일랜드의 전체 인구는 400만 명인데 코크시의 인구는 16만 명 정도이다. 실업률은 4.5%, 경제성장률은 6%이며, 최저 임금은 7.5Euro이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의약, 화학, 의료장비, 맥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이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동유럽국가에서 들어와 외국인 근로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아일랜드 지역파트너십은 OECD LEED의 모범사례

| 코크시의 지역개발협의체(Cork City Development Board) |

• 목적 · 조직 · 시운영위원회와의 관계

지역개발협의체(앞으로는 지역협의체라고 약칭)의 목적은 첫째, 공동작업(Co-ordination) 둘째, 중복을 피함(Non-duplication) 셋째, 소외된 계층을 중심(Disadvantaged)으로 한다는 것이다.

지역협의체(CDB)와 코크시 시청의 공적 업무주체인 시 운영위원회(City Management Committee)의 역할은 보완과 경쟁의 관계에 있다. 시(City) 업무에 대한 수행책임은 시청(City Council)에 있고, 시 운영위원회(City Management Committee)에는 공무원만 참여한다. 그러나 CDB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FAS)<sup>4)</sup>, 보건복지부 지역사무소, 노사단체, NGO, 사회에로계층 대표 등 26명<sup>5)</sup>의 지역파트너들이 참여한다.

• 업무수행 과정

CDB의 업무수행에서 관심있는 단체에 대해 참여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서, 특정 이슈와 분야에 대해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설립한다. 이 그룹은 특정 이슈에 대해 협의하고 CDB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실무그룹의 하나로 City Monitoring Group(CMG)이 있다. 이 그룹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코크시에서 RAPID 프로그램(Revitalising Areas by Planning Investment and Development)의 실행을 감독하고, 다른 하나는 취약계층 사회참여(Social Inclusion Measures) 업무를 보조한다.

모든 지역기관들은 그들의 계획을 CDB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

4) 고용지원센터(FAS) : 어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 및 훈련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므로 적시에 인력훈련과 직업알선을 담당하게 된다는 장점을 갖는다.

5) 위원들은 코크 시청 국장들 포함 7명, 코크시 내 Community 지도자 포함 4명, Cork 기업대표(상의대표) 2명, 중앙정부 agencies 8명(보건, 고용지원센터, 교육, 관광부 등), 사회적 파트너(노동조합, 기업가, 지역 NGO관련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 코크시의 경우 8개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CDPs)와 파트너십 기업들이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에 대해 CDB에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계획을 CDB에 제출하면, CDB는 해당 CMG에 이송하고, CMG는 이 계획을 살펴보고 승인을 해야 할지에 대해 CDB에 보고를 하고, CDB가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

• 구체적 수행업무

- 코크시의 지역개발협약에
- ① 시 운영위원회와 보완/경쟁 관계
  - ② 특정 이슈와 분야에 대해 실무그룹을 설립하여 협의하고 보고
  - ③ CDB의 중심업무는 취약계층 사회참여
  - ④ 주민의 참여와 모든 주민의 의견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

CDB의 중심업무는 취약계층 사회참여(Social Inclusion) 업무이다. 즉, 육아, 보건, 지역관광사업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경제개발에 포함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업무들이다<sup>6)</sup>. 그 동안의 실적을 예로 들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CDB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지역 곳곳에 벤처기업 임대사옥지역을 만들고, 일정 매출액 이하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일정액 이상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40%만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 준다. 또한 소방서를 개조하기로 CDB에서 결정하여 9층짜리 건물 중 2층까지만 소방서로 사용하고 3층부터 9층까지는 벤처기업이나 탁아소, 기타 공적업무 사무소로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오래된 건물을 CDB의 결정에 의하여 시에서 사들여 개조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들에 제공하였다.

아일랜드 고용지원센터(FAS)와 우리나라 고용지원센터와의 차이점은 아일랜드의 경우 지역센터장(Regional Director)이 지역예산 중 50%에 대한 자체결정권이 있어서, 지역 CDB 회의에서 나온 사안들에 맞추어 인력개발과 취업알선을 담당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장기실업해소와 지역인력부족해소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지역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은행 휴면계좌(dormant account)가 3년을 경과한 경우 그 총액을 지역개발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직 구성

주민들의 의견을 성공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와 모든 주민의 의견을 포함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커뮤니티와 자원봉사그룹<sup>7)</sup>과의 협의는 계획의 매 단계마다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코크 CDB는 지역 내에 활동하고 있는 600여 개의 커뮤니티와 자원봉사 그룹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커뮤니티의 관심에 따라 세분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계획 단계에서 지역주민 참여를 원활하게 하였다. 이들 그룹들은 자신의 분야와 유사한 분야에 참여하여 전문지식이나 견해를 제공하였고, 따라서 지역의 그룹들과 CDB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통로가 되었다. 예

6) 자세한 내용은 <http://sim.corkcity.ie/guidelined.htm> 을 참고.

7) 코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600개가 넘는 공동체와 자발적인 기관들이 있고, 자세한 목록은 <http://www.corkcity.ie/ccdb/organisation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를 들면, 네트워크가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장애인협회, 지역교육협회, 환경단체 등은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의 대표로서 CDB에 초청되지만, 아직 지역사회에 네트워크가 없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그룹들을 초대하여 초기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또한 소외 계층주민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의견을 대표할 조직된 그룹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참여를 높인다. 예를 들면 수감자, 전과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코크 감옥(Cork Prison)을 연구하기도 하였고, 아동들의 의견도 여러 면으로 반영되었다.

지역 내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여러 자치단체들의 조직이 구성되면, 다음 단계는 각각의 안전들을 검토하고 계획의 진행을 위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등 실제로 일할 그룹(working group)을 만드는 것이다.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커뮤니티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그룹을 대표할 대표자를 지명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지역의 커뮤니티와 자원봉사 부분이 지역협의체 계획의 모든 진행단계에 참여를 보장 받게 된다.

## ❖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우리는 앞에서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 지역노동 시장 분석의 한 사례로 부천 제조업 노동시장 분석과 선진국의 지역파트너십의 모범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부천 제조업 분석에서는 노동부 직업훈련 직종 50여개 중 4개의 직종에 생산가능직 인력부족의 86%가 몰려 있음에도 부천 고용지원센터를 찾는 구직자는 이러한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다. 부천 지역협의체의 하나로써 부천 금형사업조합은 금형사업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훈련을 시켜나가고 지역에서의 홍보에 힘입어 생산가능직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지역파트너십 모범사례로서는 아일랜드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유럽기금을 자금원천으로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협의체로부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중심의 지역협의체(CDB: City Development Board)로 발전 변모하고 있으며 CDB는 지역개발과 지역 고용취약계층 취업활성화에 성공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낙후 지역에서의 지역협약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서의 지역 개발을 통해 취업활성화에 성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선진국 지역파트너십 모범사례와 비교할 경우, 부천 지역은 부천지역노사정 협의회를 비롯한 금형사업 협동조합 등 지역에서의 협의체활동이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서 선진국 사례에 근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 ① 지역협의회 이슈 파악을 위한 분석
- ② 지역협의회 활성화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
- ③ 협의회 구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
- ④ 취약계층 취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연계시스템 구축
- ⑤ 중소 제조업 밀집지역 부대시설지원
- ⑥ 지역협의회 모범사례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추진

내용면에서는 아직 코크시 사례와 같은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즉 협의체의 중요 회의주제 선정도 잘 못하고 업무진척이나 업무수행도 아직 미진한 편인데, 부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의 지역협의체는 아직 그보다 수준이 낮다<sup>8)</sup>.

우리나라에서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협의체가 토론할 이슈자체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협의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셋째, 협의회 구성을 위해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기금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별 업종별 훈련시스템의 구축으로 중소도시 지역에서의 고졸 이하 청년실업 등 취약계층 취업과 중소기업 인력난의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 특히 중소 제조업 밀집지역 인근에 복지 문화시설, 식당, 오락시설 등의 부대시설지원을 통한 근로자 삶의 질 제고가 도모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협의체 모범사례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곱째, 지역협의체 활성화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차차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을 강조한다면, 지역 거버넌스에 관한 최근의 학술적 연구들이 주창하는 바와 같이 지역 시스템들의 경로의존적인 경향에 근거한 '결정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협의체 활성화 과정을 하나의 '구조적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구조적 자산'은 적절한 정책과 향상된 거버넌스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분권화 정책과 지역협의체 활성화 모색은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8) 정인수 외(2006). 『2005년 지역 노사정협의회 시범사업평가』, 노사정위원회.

**참고문헌**

정인수(2005). 『지역노동시장 활성화 선진국 사례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_\_\_\_\_(2006). 「선진국 평가와 아일랜드 Cork시 사례」. 『선진국의 지역노사정 파트너십 사례집』, 노사정위원회.

\_\_\_\_\_(2006). 『고졸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_\_\_\_\_(2006). 『지역노동시장연구(Ⅱ)』.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 외(2006). 『2005년도 지역 노사정 협의회 시범사업 평가』. 노사정위원회.

Considine(2003). “New Forms of Governance in Practice”. presented OECD Seminar, “Decentralization of Employment Policies and New Forms of Governance”. Warsaw, Poland, 27-28, March 2003.

Government of Ireland(1999). *Preparing the Ground: Guidelines for the Progress from Strategy Groups to Country/City Development Boards*. Stationery Office. Dublin, Ireland.

Melo(2001). “A New Approach to Economic Development in Sicily”. Ch.8, OECD(2001). *Local Partnerships for Better Governance*.

OECD(1998). *Local Management for More Effective Employment Policy*.

\_\_\_\_\_(2001). *Local Partnerships for Better Governance*.

\_\_\_\_\_(2003). *Managing Decentralisation*.